



[종합] 현대백면세점 두타매장 인수 '규모의 경제'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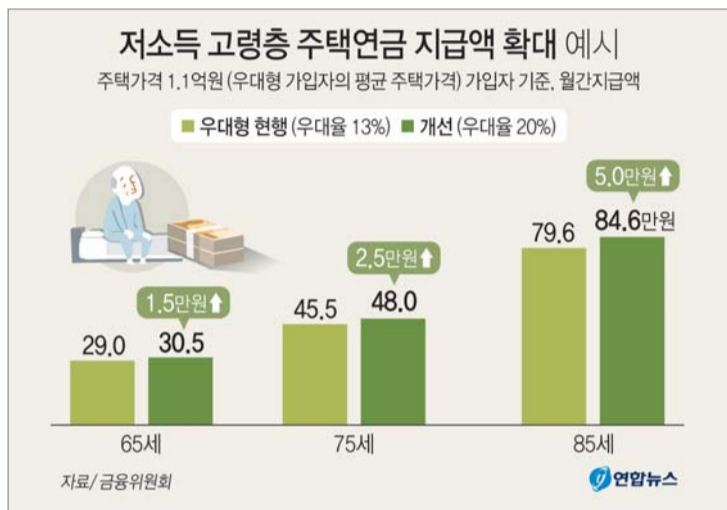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122.45 (-18.47)	코스닥	661.85 (-3.29)
금리 (우대율 20%)	1.51 (-0.05)	환율 (원/달러)	1167.80 (+7.00) (13일)

#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공시가 9억 이하면 허용

정부, 인구정책 TF결과 발표 연령 낮추고 주택대상 확대 취약층 우대율도 20%로 ↑ 배우자 연금 자동승계 개선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대상주택의 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우대율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추고 지급 금액을 확대해 노후보장에 충분한 자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

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인구정책 TF는 지난 4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우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해석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서 형성되는 만큼 시가 13억원 안팎까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가입주택 대상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단 전세

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은 주택소유권을 주공공으로 이전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확대한다. 대상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급액 우대율은 최대 13%에서 20%로 늘어난다.

자녀 동의를 없애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던 부분도 개선한다. 가입자가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했다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은 자동 승계된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수준)으로 임대 거주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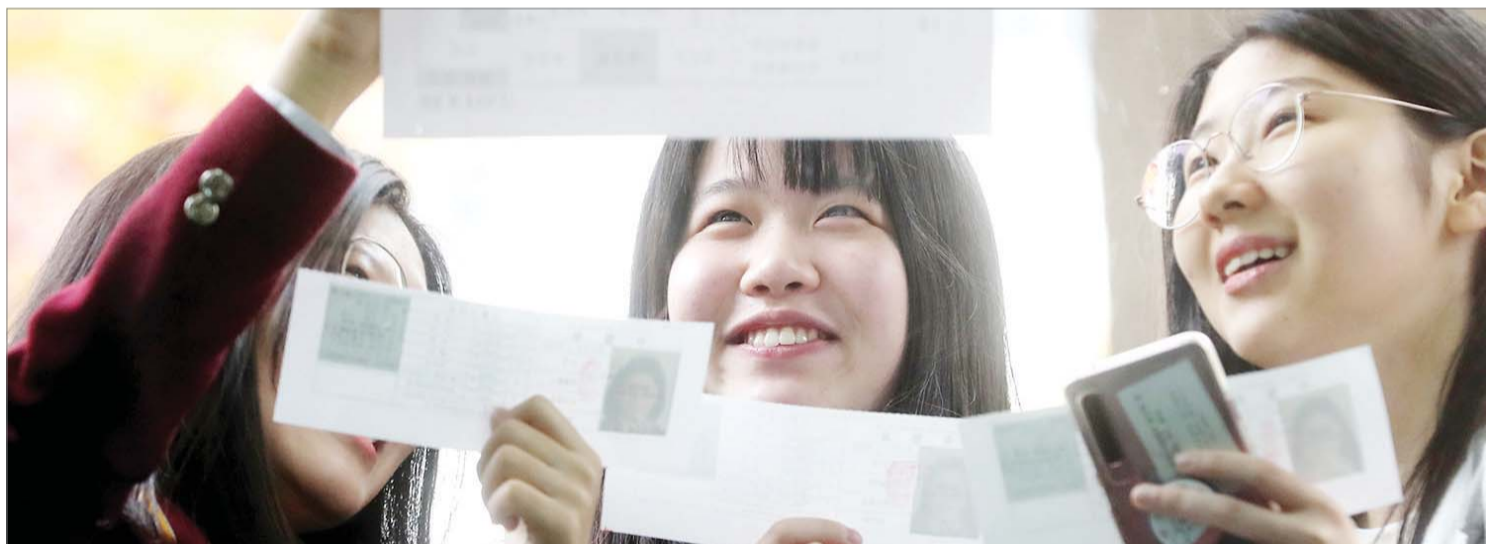
## 메트로경제 '제4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2016년 3월, '바둑의 신'으로 불렸던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을 압도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인공지능 산업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달해 우리 주위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피커 형태로, 또는 의료 지원 형태로, 또는 공장자동화 형태로 상용화됐습니다.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붙속 다가온 것입니다.

메트로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자리 잡을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 바랍니다.

- 주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09:00~11: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메트로경제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前 인공지능연구원장)
  -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SK텔레콤 이종민 상무, 이스트소프트 조성민 본부장, 네이버 신성진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
- 참가비: 사전등록시 무료(현장 신청 5만원)
- 참가신청 및 문의: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내 자리는 어디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與, '청년신도시' 만지작... 2030 표심 잡을까

민주당, 내년 총선 공약 검토 주거·일자리·보육 아우르는 청년·신혼부부 복지확대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창업·취업은 물론 출산·육아까지 책임지는 '2030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진보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산하 정치 연구기관 민주당연구원은 서울 인

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구상 중이다.

'청년 신도시'는 기존 청년 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을 결합한 신개념 도시다. 현재 물망에 오른 곳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근접해 출·퇴근이 수월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한 뒤 대상 지역을 확대·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 기능을 넘어 청년·신혼부부의 복

지를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주거·보육·일자리 등 1석 3조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거의 경우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 공급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일상에서의 어려움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당 정책위와 민주당 구원이 이같은 대형 정책 공약을 다듬어 이르면 연내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의 청년 맞춤형 제도 구상은 20·30대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진 의문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의 비위 의혹 사태 이후 청년층 민심이 이반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던 문제 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이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진보권 인사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신도시 입주 자격과 수요 등은 물론 편향적인 도시 조성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분석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취업자 수 42만명 늘었지만 3040대·제조업은 고용한파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10월 취업자 수가 42만명 가까이 늘어나며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은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하지만 주요 고용 지표는 개선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도 엿보인다. 고용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취업자 수가 17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하고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9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

이번 취업자 증가 폭은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45만

2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9월(34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증가폭은 8월을 제외한다면 2017년 4월(42만명) 이후 가장 크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2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만6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8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4000명) 등에서 줄어들었다.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인 제조업은 지난 3월(-10만8000명) 이후 감소 폭이 10만명대 아래였다가 9월(-11만1000명)에 다시 감소 폭을 키웠으나 지난달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3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

메트로신문 '수능문제 및 답안' 특별판 오후 발행